

헛똑똑이가 아닌 진정으로 현명한 여성을 위하여

최 차 혜 · 산부인과 원장, 전문의

우리 나라 여성은 똑똑하다

조 기교육은 물론 열성 엄마들의 무서운 교육열을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한국 여성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뒤지지 않을 만큼 현명하고 똑똑하다. 그러나, 그에 못지 않게 우리는 잊어버리기를 잘하는 단점도 갖고 있다.

대형 참사도 어느샌가 잊혀져 버리는 거창한 예는 들지 않더라도, 몇 해 전인가 꽤 유명한 작가와 더 유명한 배우가 만든 드라마가 있었다. 사회적·경제적으로 안정된 한 중년 여성이 자궁암에 걸려 방황하고 고뇌하던 이야기는 수많은 여성 시청자들의 눈물깨나 흠뻑었다.

방송의 위력은 대단하다

그 드라마가 방송된 후 각 병원의 산부인과마다, 속된 말로 난리가 났다. 아직은 옛되어 보이는 처녀서부터 환갑을 넘긴 할머니까지 자궁암 검사를 받으려는 여성들은 줄을 이었고, 한참의 세월이 지난 지금에까지 우리 산부인과 의사들 사이에 이야기거리로 남아주곤 했다.

그랬다. 그때만 잠시 그랬다.

어느샌가 드라마가 잊혀지고, 자궁암도 잊혀지고, 산부인과도 잊혀졌다. 여지없는 한국인의 잊혀짐에 떠밀려 여성 건강의 관심도 함께 묻혀졌다.

‘설마 나는 아닐거야. 역시 드라마일 뿐이야.’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으며 진찰에서 처방까지 스스로 끝내 버렸다.

산부인과는 무섭다

대부분 여성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나 산부인과는 결코 무서운 곳이 아니다. 여성들과 가장 가깝고, 또 가장 친해야 할 곳이 바로

산부인과인 것이다.

여성은 생리적으로, 구조적으로 성(性)과 관련된 질병이 많을 수밖에 없다. 병을 키워서 비극의 주인공이 되는 것보다 나 자신은 내가 지켜가는 것이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명한 여성이 아닐까……?

비단 육체적 질병 뿐만 아니라 여성은 성에 대해 속 시원히 터놓고 얘기할 곳이 없다. 뭐 자랑스런 일이라고 부모나 친구들에게 의논 하겠는가. 그저 가슴 속으로 끙끙 앓다 중년 이후에는 만성 소화불량이나 두통, 심할 때는 우울증으로까지 심화되는 것이 오늘날의 슬픈 현실이다.

여성은 위대하다

애인으로, 아내로, 며느리로, 어머니로 어느 면을 보아도 여성은 위대하다. 그러나 위대한 여성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질병들 또한 다양하다. 흔히 예를 들 수 있는 월경 이상에서부터 외음부 질환인 트리코모나스증, 여성 최대의 적인 변비는 물론 최근 관심사로 떠오른 골다공증 등 육체적 질병에서부터 불감증, 불면증,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인 질병에 이르기까지 여성을 괴롭히는 병의 종류는 약 올리듯 숫자가 늘어만 간다.

그러나 나이나 지위, 학력 등에 관계없이 이 세상 모든 여성들의 공통적인 고민거리는 과연 무엇일까?

바로 다이어트다

아름다운 얼굴,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은 것은 성적 매력이 절정에 달하는 20대는 물론 나이 든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모든 여성들의 공

통된 소망이 아닐 수 없다. 젊은 여성들이 비만을 우려한 나머지 굶기를 밥먹듯 하거나 담배를 끊으면 체중이 불어날까봐 끊지 못한다는 아주 그럴싸한 이유를 달아 담배 피우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경우는 이미 흔한 이야기가 되어 버렸다.

슬픈 세상이다. 왜냐하면 비만을 걱정하는 여성들 중에는 의외로 정상에 가까운 체중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날씬한 몸매를 선호한 나머지 건강을 해칠 정도로 체중 감량에 골몰하는 슬픈 경우를 수도 없이 보아왔기 때문이다.

어디에 나가서도 결코 뒤지지 않는 현명한 우리 여성들이 다이어트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부작용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애꿎은 다이어트 관련회사만 신나게 돈벌게 해준다.

외국에 나가보면 더욱 깜짝 놀란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 보아도 우리 나라 여성들처럼 예쁘고 날씬한 사람이 많은 경우는 보지 못했다. 모두가 미인이고 모두가 미스코리아다. 그러나 잘못 인식된 「말라깽이 = 섹시함」이라는 공식 하에 모든 우리 나라 여성들이 쓸데없는 돈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다 똑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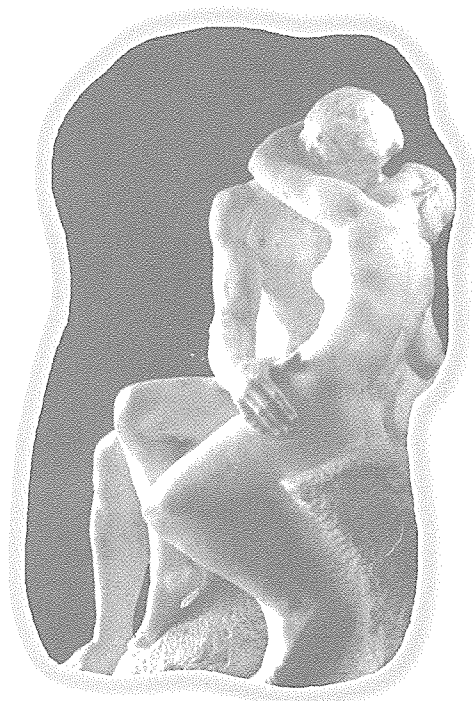
우리 나라 여성들만이 가지고 있는, 흥미롭지만 결코 자랑거리가 못되는 독특한 모습이 있다. 한 스타일의 옷이 유행하면 모두 다 그 옷을 입는다. 헤어스타일도, 구두도, 가방도, 심지어는 엄지발가락에 칠하고 다니는 매니큐어의 색깔도 똑같다.

모두 다 통바지를 입고 있는데 나 혼자 쫄바지를 입으면 촌스럽다. 모두 다 통굽의 구두를 신고 있는데 나 혼자 뽀족구두를 신으면 큰일난다. 앞집·옆집·뒷집 모두 다 다이어트 중독인데 나 혼자 삼겹살 열심히 먹으면 외계인이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느새 개성없는 시대의 중간에 덩그러니 버려져 있다.

내 맘대로 살자!

처녀라도 상관없다. 떳떳하게 산부인과에 와서 떳떳하게 본명을 쓰자. 시집간 언니 이

름, 친구 이름 들먹이지 말고 가려움증이 있거나 조금만 이상이 있다면 처녀라도 꼭 와야 할 곳이 바로 산부인과이다. 남자친구와 함께라면 더욱 좋다.



정기적인 암검사나 신체적 질병의 진찰은 물론 요즘따라 남편의 정력이 현저히 약해졌다 해도 산부인과 의사는 해결사가 되어줄 수 있다. 우리라는 공동체 생활 속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자신있게 사는 여성이야말로 그 어느 아름다움에 비할 수 있겠는가.

병원도 서비스 시대다. 권위적인 의사에 불친절한 간호사는 구석기 시대에 없어진 얘기다. 꼬박꼬박 의료보험료를 낸다면 그 만큼의 서비스 받을 권리를 포기하지 말라.

잘생긴 의사가 있는 병원, 다정한 친정집 같은 병원, 친절이 철철 넘쳐나는 병원을 찾아다닐 수 있는, 진정으로 똑똑하고 현명한 여성이 되자. 성에 관해 부끄러웠던 고민, 그에 관련된 어떠한 종류의 질병이라도 이제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찾아나서면 어떨까? 